

2023. 11. 5. 오후 1 시, In-Person & YouTube Online,
블랙스버그 한인 교회 주일 예배

설교: 임동진

본문: 잠언 Proverbs 1:20-33

제목: (2) 멸망과 평안 사이

본문 읽기

(표준새번역) 1:20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ESV) 1:20 Wisdom cries aloud in the street, in the
markets she raises her voice;

1:21 시끄러운 길 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1:21 at the head of the noisy streets she cries out;
at the entrance of the city gates she speaks:

1:22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1:22 "How long, O simple ones, will you love being
simple? How long will scoffers delight in their
scoffing and fools hate knowledge?

1:23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 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1:23 If you turn at my reproof, behold, I will pour out my spirit to you; I will make my words known to you.

1:24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1:24 Because I have called and you refused to listen, have stretched out my hand and no one has heeded,

1:25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1:25 because you have ignored all my counsel and would have none of my reproof,

1:26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1:26 I also will laugh at your calamity; I will mock when terror strikes you,

1:27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칠 때에,

1:27 when terror strikes you like a storm and your calamity comes like a whirlwind, when distress and anguish come upon you.

1:28 그 때에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1:28 Then they will call upon me, but I will not answer; they will seek me diligently but will not find me.

1:29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1:29 Because they hated knowledge and did not choose the fear of the Lord,

1:30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1:30 would have none of my counsel and despised all my reproof,

1:31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1:31 therefore they shall eat the fruit of their way, and have their fill of their own devices.

1:32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1:32 For the simple are killed by their turning away, and the complacency of fools destroys them;

1:33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1:33 but whoever listens to me will dwell secure and will be at ease, without dread of disaster."

다른 선택, 다른 결과

지혜는 지금도 우리를 부릅니다. 20-21 절. 지혜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성문 어귀(성벽 위)에서, 성 안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이 부름은 예수님의 부름입니다.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또한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표준새번역) 1:20-21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 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ESV) 1:20-21 Wisdom cries aloud in the street, in the markets she raises her voice; at the head of the noisy streets she cries out; at the entrance of the city gates she speaks:

지혜, 호크마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지혜의 부름에 어떤 대답,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지혜의 말을 듣지 않고,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그 부름에 대답하지 않은 사람은 32 절. 그 선택이 자기를 죽일 것이며, 그 미련한 선택이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의 선택이 자기를 죽인 겁니다.

1:32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1:32 For the simple are killed by their turning away, and the complacency of fools destroys them;

혹 누군가 지혜의 말을 듣고, 가까이 하기로 선택했다면, 33 절.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라고 합니다.

1:33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1:33 but whoever listens to me will dwell secure and will be at ease, without dread of disaster."

다른 선택이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모든 사람이 지혜를 선택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과 신앙에서는 일부의 사람만이 지혜를 받아들이고, 더 많은 사람은 지혜를 배척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를 선택하지 않고, 지혜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지혜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지혜를 선택하면, 자기의 삶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진리 하나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모두 어리석은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의 조언과 경고를 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바꾸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 지혜의 결과를 얻겠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지혜의 조언과 경고대로 바꾸지 않았다면, 그 어리석은 상태 그대로 남아 멸망과 고통에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혜는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꾸는 겁니까?

✓ **지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가치관’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단순히 생각이나 관념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삶의 방향은 어디를 보느냐의 문제이며,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22 절.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보십시오.

1:22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1:22 "How long, O simple ones, will you love being simple? How long will scoffers delight in their scoffing and fools hate knowledge?"

표준새번역의 ‘어리숙한 사람’(페타임)은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단순한 사람입니다. ‘비웃는 사람’은 거만한 사람(레짐)을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케실림)은 윤리적으로 결함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리석은 사람, 거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지 22 절의 동사를 보십시오. 좋아하다, 비웃기를 즐겨하다, 지식을 미워하다. 각자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지혜 없는 상태를 즐기고 있습니다.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누리는 안락함에
안주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삶,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 삶, 자기를 마음껏 자랑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깔보며 비웃으며 살아가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성경은 한결 같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성경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표준새번역) 로마서 12:2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ESV) Romans 12:2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that by testing you may discern what is the will of God, what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지혜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어리석었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본문 23 절.

지혜의 책망을 듣고, 단호히 돌아서야 합니다. 지혜가 '내 영'을 보내 준답니다. 그 지혜의 영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 적절한 때에 깨닫게 해 주십니다.

1:23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 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1:23 If you turn at my reproof, behold, I will pour out my spirit to you; I will make my words known to you.

그 지혜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표준새번역) 에베소서 1:17-18a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빕니다.**

(ESV) Ephesians 1:17-18a ... the God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glory, may give you the Spirit of wisdom and of revelation in the knowledge of him, having the eyes of your hearts enlightened,

우리 모두 시작은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따라, 지혜의 가치관으로, 지혜가 가르쳐 주는

대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가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 길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지혜는 내가 살아왔던 삶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지혜의 선택이며,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와 주시는 길입니다.

지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며, 또한

**✓ 지혜는 삶의 태도(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삶의 방법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 절. 지혜가 불려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너무 옳은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무지이며, 세상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1:24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려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1:24 Because I have called and you refused to listen, have stretched out my hand and no one has heeded,

25 절. 도리어 지혜의 모든 충고를 무시합니다.

성경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25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1:25 because you have ignored all my counsel and would have none of my reproof,

29 절.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싫어합니다.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면 화를 내며 싫어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반박하고, 인간을 만들었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놔 두시라고 대답합니다.

1:29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1:29 Because they hated knowledge and did not choose the fear of the Lord,

30 절. 성경의 충고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며,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고 말해도, 신은 없고 오직 우연과 자유만 있다고 말합니다.

1:30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1:30 would have none of my counsel and despised all my reproof,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자아 실현이라고 가르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교육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평안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기술과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조언합니다. 인간의 정치와 정책으로, 돈으로, 제도로, 전쟁과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이 땅에 행복과 평화와 정의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잠시간의 위안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탐욕스러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이 얼마나 뼈속까지 이기적이며 악한 지 되짚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 없이 어떻게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말입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학교, 학위, 직장에서 작은 위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이 세상 방법이 아니라, 지혜가 알려주는 삶의 방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준새번역) 에베소서 4:22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방식에 얽매어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ESV) Ephesians 4:22 to put off your old self,[f] which belongs to your former manner of life and is corrupt through deceitful desires,

옛 사람, 곧 세상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23-24 절 같이 읽겠습니다.

**23-24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23-24 and to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s, and to put on the new self,
created after the likeness of God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곧 새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지혜롭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아 보일 겁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십자가의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고전 1:18 절,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새 생명,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방법일
뿐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표준새번역) 고린도전서 1:18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ESV) 1 Corinthians 1:18 For the word of the cross is folly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이어지는 21 절,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무시했던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느 방법을 따라가시겠습니까?

1:21 이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1:21 For since, in the wisdom of God, the world did not know God through wisdom, it pleased God through the folly of what we preach[to save those who believ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셨다면, 이제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 창조된 새 사람, 새 삶의 방법으로 바꾸십시오. 주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 삼아 살아가십시오.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을 바꾸면, 본문 33 절. 주께서 우리를 안심하며 살게,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평안히 살게 하십니다.

1:33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1:33 but whoever listens to me will dwell secure and will be at ease, without
dread of disaster."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방법을 바꾼 사람이 얻게
될 평안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27 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 준다. 나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John 14:27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Let not your hearts be troubled, neither let them be afraid.

기도: 하나님의 지혜로

- 세상이 알려 주는 어리석은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표이시며, 인도자이십니다.
- 세상의 방법, 나의 욕망을 채우는 삶의 방법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께서 주시는 하늘 평안을 지금부터 누리게
하소서

소그룹에서 나눌 질문들

(2023.11.5. 멸망과 평안 사이, 잠언 1:20-33)

1.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의 상황과 느낌을 나누어 봅시다.
2.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누어 봅시다.)
3. '지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의 어떤 것을 바꾸어야 할까요?
4. '지혜는 삶의 태도(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나에게 적용한다면, 삶의 어떤 태도, 방법을 바꾸어야 할까요?
5.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며 생각나는 자기 기도제목을 모임에서 나누고, 서로 기도해 줍시다.